

## 인성동화를 활용한 협동활동이 유아의 배려적 사고에 미치는 영향\*

박현지<sup>1</sup> 김지은<sup>2</sup>

### The Effects of Cooperative Activity using Character-related Picture Books on Children's Caring Thinking

Park, Hyun Ji<sup>1</sup> Kim, Ji Eun<sup>2</sup>

본 연구는 현대사회의 유아들에게 발생하는 사회문제 중 개인주의적 성향 증가, 탈 공동체화 현상을 해결하고자 인성동화를 활용한 협동활동을 구성하였다. 이를 적용하여 유아가 자신에 대한 이해와 타인에 대한 배려적 사고를 올바르게 형성하도록 돕는데 목적이 있다. 충청북도 C시의 K어린이집과 S어린이집 2개 학급의 만 4세 유아 50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며, 자료 수집은 배려적 사고 검사도구를 이용하여 독립 t검증을 실시하고 놀이상황 녹음·녹화, 연구자의 저널 등의 질적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결과, 실험집단의 점수가 비교집단의 점수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인성동화를 활용한 협동활동이 유아의 배려적 사고에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인성동화를 활용한 협동활동은 자신을 이해하고 타인의 감정을 존중할 줄 아는 배려적 사고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본 연구가 인성동화를 활용한 협동활동의 적용에 도움을 제공하고 인성교육활동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것을 기대한다.

■ 주제어 인성동화, 협동활동, 배려적 사고

\* 본 논문은 2015년 건국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과 석사학위 논문의 일부임.

<sup>1</sup> 제 1저자: 건국대학교 유아교육과 석사졸업, zeze6332@naver.com

<sup>2</sup> 교신저자: 건국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jek@kku.ac.kr

## I. 서론

오늘날 우리 사회는 경제성장과 과학기술의 발달 등으로 급속한 사회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물질적으로는 풍요롭지만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의 증가로 마음의 질은 떨어지고 있는 현실에 처해있다. 이로 인해 현대인들의 이기주의적 사고의 증가와 도덕성 결여로 학교에서는 집단 따돌림, 학교 폭력 등 각종 사회문제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연령대는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유아의 경우 가정에서 TV, 스마트폰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혼자 놀이하는 시간이 많아져 대인관계의 경험이 줄어들고 개인주의가 점차 심화되어 또래와 함께 놀이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지고 있다. 또한 유아기 부모들은 자녀교육에서 전인적 발달을 꾀하기 보다는 지적발달을 강조하고 있으며 지나친 사교육으로 인해 유아들은 타인에 대한 배려나 존중보다는 자기중심성과 경쟁심을 미리 접하게 된다. 그 결과 현대사회의 유아들은 이기적인 태도,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 결여,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 부족, 협동심 부족 등의 문제를 보이며 이러한 문제로 인해 유아가 공동체 생활 즉 사회적 활동을 하는 가운데 부적응을 나타내거나 끊임없는 갈등을 보이고 있다(교육부, 1993; 이순옥, 2014; 최기영, 신선희, 2003).

우리의 교육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사회적 활동 부적응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아이들에게 정답만을 요구하고 있으며 과정보다는 결과중심의 교육, 주입식 교육, 지식 위주의 교육에 치중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은 유아의 개인주의적 성향을 더욱 향상시키고 또래간의 경쟁의식을 강조하게 되므로 우리의 교육에서 사회문제 해소와 유아들의 개인주의, 이기적인 태도의 감소를 위한 공동체 활동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즉 유아에게 경쟁이 아닌 타인과 함께하는 공동체 생활을 통해 협동이라는 가치를 강조해야 한다. ‘협동’이란 유아들이 서로 함께 모여서 활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두 사람 이상이 모여 그룹을 만들고 구성원들이 공동의 목표를 설정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하여 조언과 조력을 주고받는 활동을 뜻한다(박미주, 2009). 유아에게 협동은 자신의 경험과 협동 과정 중 인지적으로 느낀 점을 타인과 상호작용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고 받아들이는 경험을 제공한다. 의견을 전달하는 상호작용 과정 속에서 긍정적 상호작용 뿐만 아니라 갈등상황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 또래와의 올바른 상호작용으로 자신에 대한 이해와 타인에 대한 배려, 존중 능력을 발달시키게 된다. 또한 협동 활동 과정 중 발생하는 문제를 타인과 힘을 모아 해결해 나가면서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생활습관을 형성하게 되어 올바른 가치관과 태도를 학습할 수 있다(교육부, 2000; 김영옥, 2000; 이윤옥, 2011). 이처럼 협동활동은 타인과 함께 공동체 활동을 함으로써 인성교육의 목표인 자신에 대한 이해, 타인에 대한 배려, 존중, 양보 등 유아에게 바람직한 인성을 기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며, 유아는 또래와 협동활동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타인에 대한 배려를 실천하기 위한 배려적 사고가 길러질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유아들은 협동활동 과정 속에서 타인과의 관계가 이루어진다. 이때 타인과의 관계에서 상황에 따라 어떠한 사고를 해야 할지 행동을 결정짓는 배려적 사고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현대사회의 유아들에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인식하는 배려를 찾아보기 어려우며, 더욱이 배려적 사고에 대한 교육은 부족한 현실에 처해있다. 특히 유아가 처음으로 타인을 마주하게 되는 유아교

육기관에서는 지식위주와 특기활동 중심의 교육과 타율적이고 획일적인 교육과정으로 인성교육에 대한 지도가 소홀한 실정이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하지만 미래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가치 있게 여기는 인성적 덕목을 갖춘 사람이 필요하며(이성호, 2014) 이러한 덕목은 유아기에 결정되기에 이 시기부터 배려에 대한 교육이 강조되어야 한다. 최근 유치원 교육과정에서도 배려적 사고에 대한 교육을 유아기부터 실시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07년 개정 7차 유치원 교육과정은 ‘사람과 자연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한국인 육성’을 기본방침으로 하여 감정조절, 감정이입, 긍정적 자아인식, 타인 이해와 존중, 나누기, 협력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5세 누리과정의 기본방향에서도 질서, 배려, 협력 등의 기본생활습관과 바른 인성을 기르는 것을 중점으로 하고 있으며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생활하는 태도를 기르는 것을 교육목표로 두고 있다. 이처럼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에서도 유아들의 인성교육을 강조하고 있으며 타인과 함께 생활하면서 올바른 인성을 형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중 ‘배려’는 인성 요소 중 하나로 배려의 교육을 통해 유아는 타인을 배려할 수 있고 서로 도와가면서 협력적으로 살아가는 능력을 갖추게 한다(교육과학기술부, 2008, 2012).

배려는 타인의 필요와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 공감하는 것이며 배려를 위해서는 배려적 사고가 선행한다. 배려적 사고는 ‘타인’과 관계된 사고로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나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에 대한 관심과 배려, 감정이입과 연관된 사고활동이다. 즉 타인에 대한 공감과 관심을 전제로 타인을 존중하고 적극적으로 돌보려는 성향을 지닌 사고이며, 배려를 올바르게 실천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사고의 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이춘희, 2009; 정혜영, 2010). 배려적 사고는 유아가 협동활동 과정 중 자신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지닌 또래와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모둠을 이루어 활동하면서 모둠원에 대한 배려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을 예상해볼 수 있다. 하지만 전조작기 유아들은 자기중심성이 강하여 자신에 대한 이해와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는 일에 어려움이 따른다. 때문에 유아에게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으며 쉽게 배려를 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매체가 필요하다. 그 중 ‘그림책’은 효과적인 매체로 사용될 수 있다.

그림책 속 동화내용을 듣는 활동을 통해 유아는 사회 정서적 자극을 받고 이해하는 능력을 발달시켜 나가며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배우게 된다. 유아에게 배려, 존중, 협력, 나눔, 질서, 효의 인성덕목이 담긴 동화를 들려줌으로써 동화 속 인물들이 행하는 배려적인 모습을 보기도 하고 동화에서 나타나는 문제해결과정을 간접적으로 경험해보면서 타인에 대한 배려적 사고를 내면화 시킬 수 있다. 즉 협동활동을 함으로써 배려적인 사고가 형성되는 과정은 다소 추상적이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동화를 매개로 사용함으로써 유아는 다른 사람의 정서를 인식하고 이해하는 간접적인 경험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동화는 유아들에게 다양한 삶의 모습과 타인에 대한 감정이입이라는 간접경험만을 제공할 뿐 유아들이 몸소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없다. 따라서 동화를 활용한 ‘활동’을 구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유아에게 그림책을 활용하여 여러 가지 삶에 대한 이야기를 접하게 하고, 타인에 대한 감정이입과 함께 간접경험을 하게 한다. 그 뒤 또래 유아들과 모둠을 만들어 동화의 내용에 적합한 활동으로 직접 경험을 할 때 타인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마련된다. 따라서 인성덕목이 포함된 동화를 듣고 유아는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며 등장인물에 대한 감정이입과 더불어 인성덕목에 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일차적으로 인성덕목이 포함된 동화를 듣고 배려를 간접적으로 경험한 뒤 배려적 사고를 내면화 한다. 이후 동화의 내용에 부합하는 협동활동을 통하여 타인과 직접적인 상호작용으로 다른 사람의 정서를 보다 잘 이해하며 배려적인 사고를 형성하고 실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므로 유아에게 동화를 활용하여 배려에 대한 간접적인 체험을 제공하고, 협동활동을 통해 타인에 대한 배려적 사고가 길러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협동활동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주로 협동활동이 유아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협동이나 공유하는 행동이 일어나는 역할놀이, 블록놀이, 게임활동은 유아들에게 친사회적 행동을 습득하게 하고 사회적 능력을 성장시킨다. 또한 유아들이 사회적 활동을 경험하는 와중에 겪는 어려움을 긍정적으로 회복하도록 한다고 보고함으로써 연구자들은 유아가 협동활동을 통해 어려움을 쉽게 극복하고 긍정적으로 해결한다고 하였다(홍은미, 2008). 즉 협동활동은 유아가 사회적 활동을 통해 타인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타인을 이해하는 기술과 태도를 습득 할 수 있으며, 친사회적 행동을 하게 한다. 이처럼 협동활동의 긍정적인 측면을 밝히는 연구들은 많이 이루어져 왔지만 대부분 협동 미술활동(양새롬, 2013; 이수기, 2005), 협동적 게임활동(이정애, 2010), 협동적 요리활동(박혜진, 2012)등으로 제한적이며 주로 한 가지 형태로 협동활동에 대한 연구가 단편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만 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였다는 한계점이 있다. 협동활동은 대부분 그룹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교사가 유아를 통제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래와 함께 하는 활동에 자기중심성이 강한 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기엔 어려움이 따른다. 이러한 이유로 인지적, 사회적으로 성숙한 만 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Fisher(1999)는 “너무 어리기 때문에 유아기에 시작할 수 없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유아교사의 말을 인용하여 어린 유아에게도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하였다. 즉 만 4세 유아라 할지라도 장래에 상위 차원의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정신수완과 경험을 소개할 수 있다고 하면서(이춘희, 2009, 재인용) 만 4세 유아에게 장래를 위한 여러 가지 경험 제공의 필요성을 이야기 했다. 또한 Parten(1933)의 연구에 따르면 만 3세부터 점차 타인과의 놀이가 시작되고 만 4세가 되어서는 놀이가 더욱 복잡하고 확장되어 높은 수준의 사회적 관계가 집단놀이에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하였다. 협동놀이는 주로 만 4~5세에 나타남으로 협동놀이가 발생하는 시기에 교육적인 목적을 더해 협동활동을 실시한다면 장래 유아의 올바른 협동놀이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만 4세부터 협동놀이가 이루어 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연구들은 자기중심성과 조망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만 3, 4세 학급의 협동작업 실시빈도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김영옥, 2000).

만 4세부터 협동놀이가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이 만 5세 유아를 대상으로 협동활동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만 4세 유아를 대상으로 한 협동활동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키즈맘(2015)의 자료에 따르면 만 3~5세는 유아의 인성 학습능력을 높일 수 있는 골든 타임이며, 바른 인성의 기초를 형성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인성의 기초를 형성하기 시작하는 만 3~4세 유아들에게 또래와 함께 하는 협동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적 경험을 통한 인성교육인 배려적 사고에 대한 협동활동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자는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주로 만 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한 대상연령의 한계성을 벗어나 만 4세 유아부터 협동놀이와 사회적 관계형성이 이루어진다는 이론을 바탕으로

만 4세 유아를 대상으로 인성덕목이 포함된 동화를 활용하여 협동활동을 진행하고자 한다. 배려적 사고라는 변인의 특수성과 유아의 배려적 사고 변화과정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결과를 위하여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방법을 혼합하여 사용할 것이다. 유아의 배려적 사고는 단순히 사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타인에 대한 언어적·행동적 표현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협동활동을 적용하기 전과 이후에 유아들의 배려적 사고 변화양상을 양적인 데이터로 측정해 볼 뿐만 아니라 배려적 사고의 언어적·행동적 표현을 전사하고 분석하는 방법을 통하여 유아들의 배려적 사고의 변화과정을 질적으로 알아보고 또래관계에서 나타나는 배려적인 모습을 역동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교육과학기술부(2012)가 선정한 여섯가지 인성덕목인 배려, 존중, 협력, 나눔, 질서, 효가 포함된 동화를 매개로 다양한 활동형태의 협동활동을 실시하여 유아의 배려적 사고에 미치는 효과 및 배려적 사고의 변화과정을 밝히고자 한다. 연구 결과는 유아교육 현장에서 인성동화를 활용하는 방안과 협동활동의 적용에 도움을 제공하고 이후 인성동화를 활용한 협동활동 프로그램, 인성교육활동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상의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인성동화를 활용한 협동활동이 유아의 배려적 사고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둘째, 인성동화를 활용한 협동활동 속에서 나타나는 유아의 배려적 사고 변화과정은 어떠한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충청북도 C시에 소재한 K어린이집과 S어린이집 2개 학급의 만 4세 유아 5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충청북도 C시의 지역적 특성상 한 기관에서 만 4세 유아를 모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C시 내에 위치하며 지리적으로 가깝고, 가정환경, 어린이집 보육환경 등이 유사한 어린이집 두 곳으로 임의선정 하였다. 실험집단은 K어린이집 만 4세 유아 25명(남아: 11명, 여아: 14명)이며, 비교집단은 S어린이집의 만 4세 유아 25명(남아: 11명, 여아: 14명)으로 하였다. 두 집단 유아의 성별, 월령, 교사의 경력을 비교하고 사전검사 결과를 검증하여 집단 간 차이를 알아봄으로써 동질성을 확보하였다. 두 집단의 성별 월령, 교사의 경력에 대한 비교는 <표 1>과 같으며, 실험·비교집단의 동질성 확보를 위한 사전검사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1> 두 집단의 성별 및 월령, 교사경력

	성별(명)			평균월령 (개월)	교사경력 (년)
	남	여	계		
실험집단	11	14	25	60.13	3.5
비교집단	11	14	25	60.31	4
전체	22	28	50	60.22	3.75

<표 2> 두 집단에 대한 배려적 사고 사전검사 결과비교

	실험집단( <i>n</i> =25)		비교집단( <i>n</i> =25)		<i>t</i>	<i>p</i>
	평균( <i>M</i> )	표준편차( <i>SD</i> )	평균( <i>M</i> )	표준편차( <i>SD</i> )		
배려적 사고	100.12	13.79	101.16	16.80	-.24	0.81

*p* > .05.

## 2. 연구 도구

연구도구는 Lipman(2003)이 제시한 배려적 사고 유형 및 특성을 기초로 이춘희(2007)가 구안한 교사용 유아의 배려적 사고 관찰 척도를 사용하였다. 연구도구는 유아교육 전문가 3인에게 내용타당도를 검증받았으며, 신뢰도를 검증해 본 결과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96으로 나타났다. 배려적 사고 검사도구는 5개의 하위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치부여적 사고 8문항, 규범적 사고 7문항, 정서적 사고 7문항, 감정이입적 사고 8문항, 행동적 사고 8문항의 총 3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도구의 검사 실시방법은 배려적 사고 영역의 각 문항에 대하여 각 반의 담임교사가 유아의 평소 생활 모습 중 배려적 사고가 언어적 표현과 행동으로 나타낸 것을 관찰하여 제시된 기준에 따라 평정하도록 진행하였다. 배려적 사고 검사를 실시하기 전 담임교사에게 교사훈련을 통해 검사 방법과 주의할 점에 대해 인지하도록 하고, 공동체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유아의 배려적 사고 수행(언어적, 행동적 표현)을 관찰하여 척도에 응답하게 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SPS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변인의 전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인성동화를 활용한 협동활동이 유아의 배려적 사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차이를 분석하는 독립 *t*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3> 배려적 사고의 하위영역별 내용과 문항구성

하위영역	내용	문항 수
가치 부여적 사고	소중히 여기기, 가치있게 여기기, 축하하기, 마음에 간직하기, 감탄하기, 존중하기, 보존하기, 칭찬하기	8
규범적 사고	요구하기, 의무 다하기, 강제적 의무 따르기, 적절함 알기, 권면하기, 강하게 요구하기, 기대하기	7
정서적 사고	좋아하기, 사랑하기, 길러주기, 경의를 표하기, 화해하기, 친근하기, 격려하기	7
감정이입적 사고	고려하기, 동정하기, 성원보내기, 주의를 기울여 돌보기, 연대감 갖기,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기, 신중해지기, 상상하기	8
행동적 사고	조직하기, 참여하기, 관리하기, 실행하기, 구축하기, 공헌하기, 완수하기, 구하기	8
합계		38

### 3. 연구절차

인성동화를 활용한 협동활동이 유아의 배려적 사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한 전체적인 연구 진행과정은 <표 4>와 같다.

<표 4> 전체적인 연구 진행과정

연구 진행과정	일정
프로그램 구성 및 검증	4. 14 ~ 6. 5
예비연구	6. 9 ~ 6. 19
교사훈련	6. 20 ~ 6. 23
사전검사	6. 23 ~ 6. 27
프로그램 실시	6. 30 ~ 9. 30
사후검사	10. 1 ~ 10. 5

본 연구는 인성동화를 활용한 협동활동으로 교육과학기술부(2012)가 제안한 인성덕목 여섯 가지인 배려, 존중, 협력, 나눔, 질서 효가 포함되어 있는 동화책을 선정하고, 실천적 행동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형태인 미술, 극놀이, 뒷이야기 꾸미기, 요리, 게임 등으로 공동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을 계획하였다. 동화는 교육과학기술부(2012)가 제시한 인성덕목의 의미에 부합하도록 본 연구자가 동화책의 주제와 내용에 따라 인성덕목을 판단하였으며, 동화와 연계된 협동활동을 구성하기 위해 인성요소와 더불어 ‘협력’적인 요소가 포함된 동화를 선정하였다. 인성동화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그림책 선정시 고려할 점을 파악하였고 이차적으로 인성요소가 포함된 그림책 평가준거를 마련하여 이를 토대로 인성동화를 선정하였다(김수혜, 2013; 김정원, 민희숙, 방승연, 2014; 서정숙, 김정원, 남규, 2006). 인성동화 그림책 평가준거의 타당도와 인성동화 그림책이 만 4세 유아를 대상으로 적합하지 판단하기 위해 충청북도 C시의 현직 유아교사 5명과 유아교육 전문가 3명에게 검증받았다. 본 연구에서 협동활동을 구성하기 위해 활용한 인성동화 그림책 선정기준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인성동화 그림책 선정기준

평가요소	질문목록
인성교육 관련요소	·인성교육덕목(배려, 존중, 협력, 나눔, 질서, 효)이 포함 되었는가? ·배려, 존중, 협력, 나눔, 질서, 효 중 어느 인성교육 관련 요소에 해당하는가? ·유아와 유대감을 형성하기 쉽게 인성관련 내용이 효과적으로 표현되었는가? ·다양한 인성에 대한 의미가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내포되어 있는가? ·유아의 의미 있는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삶의 방식을 다루고 있는가?
교육적 요소	·내용의 길이가 유아의 연령, 흥미, 발달적 특성과 적합한가? ·내용이 생동감 있고 유아에게 감동을 주는가? ·선하고 긍정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가?
문학적 요소	·유아의 경험과 흥미에 초점을 두었는가?

	·문장이 간결하고 명확하게 제시되었는가?
	·내용이 사실적으로 정확하게 표현되었는가?
예술적 요소	·글과 그림이 조화를 이루는가?
	·그림이 간결하면서도 효과적으로 표현되었는가?
	·그림이 사실적으로 정확하게 표현 되었는가?
	·유아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가?

본 프로그램은 유아에게 협동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배려적 사고를 통한 인성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유아의 배려적 사고형성을 위해 각종 관련 문헌을 탐색하여 프로그램의 내용과 교수-학습 방법 등을 구성하고, 프로그램 각 내용에 적합한 인성요소를 포함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1차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으며, 1차 프로그램은 다시 유아교육 전문가 3인과 현장의 유아교사 5인에게 타당성을 재검증 받았다. 프로그램의 적절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충청북도 C시에 위치한 G유치원에서 예비연구를 실시하였다. 예비연구를 통해 프로그램을 수정·보완하였으며 인성동화를 활용한 협동활동을 최종적으로 구성하였다.

2014년 6월 23일부터 6월 27일까지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유아들을 대상으로 사전검사를 실시하였다. ‘배려적 사고’ 검사도구는 어린이집 일과 중 공동체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행동과 언어적 표현을 관찰하는 도구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담임교사가 각각 평정하였다. 사전검사를 시작하기 전에 검사 방법과 주의할 점 등을 인지할 수 있도록 먼저 교사 훈련을 나흘간 실시하였다. 교사훈련은 담임교사에게 배려적 사고 관찰척도를 읽게 한 후 문항 중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물어보고, 배려적 사고의 의미와 검사 시 유의점을 설명한 뒤 척도에 응답하게 하였다. 한 학급에 교사가 두 명인 것을 고려하여 담임교사에게 개별적으로 평정을 하게 한 뒤 반복 연습하여 관찰자 간의 일치도를 구하였다. 최종적으로 실험집단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91, 비교집단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alpha$ )는 .92로 관찰자간 일치도가 높게 나타났다.

사전검사 후 인성동화를 활용한 협동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위해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자는 실험집단에 2014년 6월 30일부터 매주 2회씩 총 20회 참여하여 프로그램을 실시했으며, 홀수 회차에는 약 20분간 인성동화를 듣고 난 후 인성동화의 내용을 파악하고 자신의 느낌과 인성덕목에 관한 이야기 나누기 시간을 가졌다. 짝수 회차에는 약 40~50분 정도가 소요되었으며, 인성동화 내용의 실천적 부분에 초점을 두어 유아가 협동활동을 하는 가운데 배려적 사고를 기를 수 있도록 하였다. 비교집단에는 프로그램을 매주 2회씩 총 20회 실시하였으며 홀수 회차에는 대집단 형태로 동화를 들려주고 이야기 나누기를 약 20분간 진행하였고, 짝수 회차에는 소집단 형태로 실험집단에 들려준 동화를 매개로 이야기 나누기를 진행하였다.

프로그램 실시 이후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사후검사를 사전검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2014년 10월 1일부터 10월 5일까지 각 반의 담임교사가 실시하였다.

〈표 6〉 프로그램의 교수-학습방법

회	도서명	활동명	활동 유형	활동내용	인성덕목					
					배려	존중	협력	나눔	질서	효
1	으뜸 헤엄이	으뜸 헤엄이	이야기 나누기	· 동화를 듣고 이야기 나눈다.	●	●	●			
		으뜸 헤엄이 만들기	미술	· 협력하여 여러 가지 재료로 커다란 물고기를 만들어본다.			●			
2	길 아저씨 손 아저씨	길 아저씨 손 아저씨	이야기 나누기	· 동화를 듣고 이야기 나눈다.	●	●	●			●
		징검다리 건너기	게임	· 붓대로 눈을 감고 장애물을 건너본다.			●			
3	팔죽 할머니와 호랑이	팔죽 할머니와 호랑이	이야기 나누기	· 동화를 듣고 이야기 나눈다.	●		●	●		●
		팔죽할머니와 호랑이 동극	동극	· 역할을 맡아 동극을 한다.			●			
4	집쟁이 빌리	집쟁이 빌리	이야기 나누기	· 동화를 듣고 이야기 나눈다.	●	●	●	●		
		걱정인형 만들기	미술	· 걱정인형을 만들어 본다.			●			
5	선인장 호텔	선인장 호텔	이야기 나누기	· 동화를 듣고 이야기 나눈다.	●		●	●		
		어떻게 되었을까?	뒷 이야기 꾸미기	· 뒷 이야기를 꾸며본다.			●			
6	달 샤베트	달 샤베트	이야기 나누기	· 동화를 듣고 이야기 나눈다.	●	●	●	●		
		샤베트 만들기	요리	· 과일로 샤베트를 만들어본다.			●			
7	커다란 순무	커다란 순무	이야기 나누기	· 동화를 듣고 이야기 나눈다.			●	●	●	
		커다란 순무 동극	동극	· 역할을 맡아 동극을 한다.			●			
8	손 큰 할머니의 만두 만들기	손 큰 할머니의 만두 만들기	이야기 나누기	· 동화를 듣고 이야기 나눈다.	●		●	●		●
		만두 만들기	요리	· 요리재료를 나누어 하나의 큰 만두를 만들어본다.			●			
9	복두칠성이 된 형제들	복두칠성이 된 형제들	이야기 나누기	· 동화를 듣고 이야기 나눈다.	●	●	●		●	●
		어떻게 되었을까?	뒷이야기 꾸미기	· 뒷 이야기를 꾸며본다.			●			

10	빨간불과 초록불은 왜 싸웠을까?	빨간불과 초록불은 왜 싸웠을까?	이야기 나누기	·동화를 듣고 이야기 나눈다.	●	●	●	●	
	싸웠을까?	횡단보도 건너기	게임	·규칙을 지켜 횡단보도를 건넌다.		●			

#### 4. 질적인 연구방법을 통한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유아의 배려적 사고 변화과정을 알아보기 위해 인성동화를 활용한 협동활동이 진행되는 동안 녹음 및 비디오 촬영, 유아의 작품 수집, 연구자의 저널 작성 등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자가 프로그램을 처치하는 과정 중 정확한 관찰이 어려울 것을 염려하여 유아교육을 전공하는 대학원생 연구보조자 1인이 투입되어 보조교사 역할과 비디오 촬영을 함께하였다. 배려적 사고의 변화과정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기존의 모습’, ‘변화된 모습’으로 주제를 나누고 본 연구자가 유아의 놀이상황을 관찰하면서 빈번하게 일어난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유목화 작업을 통하여 ‘소주제’를 선별하였다. 수집한 자료 중 소주제에 가장 적합하며 소주제를 대표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연구결과에 유아들의 발문 내용을 제시하였다.

유아들의 배려적 사고에 대한 기존의 모습을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자와 연구보조자는 프로그램 처치 전 예비연구와 사전검사가 실시되는 기간 동안 유아들의 오전 자유선택 놀이시간에 비참여의 방법으로 약 50분간 관찰하였다. 관찰한 내용은 일화기록하고 전사하였으며, 프로그램 진행 중 홀수회차에는 대집단 형태의 이야기 나누기를 캠코더로 촬영하고 교사와 유아간의 상호작용 및 유아 대 유아간 상호작용 내용을 녹음·녹화하여 전사하였다. 짝수 회차에는 소집단 활동으로 유아들과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한 것을 녹음·녹화 하였다. 프로그램 처치 후에는 프로그램 처치 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오전 자유선택 활동시간에 놀이상황을 관찰하여 전사하였다.

### Ⅲ. 연구결과 및 해석

본 연구는 인성동화를 활용한 협동활동이 유아의 배려적 사고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인성동화를 활용한 협동활동이 유아의 배려적 사고에 미치는 영향

인성동화를 활용한 협동활동이 유아의 배려적 사고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배려적 사고에 대한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한 후, 분석한 결과는 <표 7>와 같다. <표 7>에 제시된 바와 같이, 배려적 사고는 사전검사에서 실험집단( $M = 100.12, SD = 13.79$ )과 비교집단( $M = 101.16, SD = 16.80$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t = -.239, p > .05$ ). 그러나 인성동화를 활용한 협동활동 프로그램을 적용한 후에 실시한 사후검사에서는 실험집단 유아들의 점수( $M = 120.64, SD = 17.39$ )가 비교집단 유아들의 점수( $M = 108.68, SD = 13.40$ )

<표 7> 배려적 사고 하위요인에 대한 두 집단의 사전·사후검사 결과

배려적 사고	검사	실험집단( <i>n</i> =25)	비교집단( <i>n</i> =25)	<i>t</i>
		<i>M</i> ( <i>SD</i> )	<i>M</i> ( <i>SD</i> )	
가치부여적 사고	사전검사	20.00(2.41)	19.92(3.34)	.097
	사후검사	25.92(3.63)	23.88(3.44)	2.039*
규범적 사고	사전검사	19.72(2.42)	18.84(3.63)	1.00
	사후검사	22.80(2.84)	19.84(3.14)	3.491**
정서적 사고	사전검사	18.68(2.96)	19.20(3.36)	-.579
	사후검사	22.60(4.02)	20.32(3.58)	2.118*
감정이입적 사고	사전검사	20.68(3.82)	21.64(4.35)	-.828
	사후검사	24.44(4.16)	22.20(3.06)	2.165*
행동적 사고	사전검사	21.04(4.08)	21.56(4.19)	-.444
	사후검사	24.88(4.84)	22.44(3.50)	2.042*
전 체	사전검사	100.12(13.79)	101.16(16.80)	-.239
	사후검사	120.64(17.39)	108.68(13.40)	2.724**

\**p* < .05, \*\**p* < .01.

보다 배려적 사고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 = 2.724, *p* < .01). 실험집단의 경우에는 배려적 사고 평균이 100.12점 (*SD* = 13.79)에서 120.64점(*SD* = 17.39)으로 20.52점 증가하였고, 비교집단의 경우에는 배려적 사고 평균이 101.16점(*SD* = 16.80)에서 사후검사의 평균점수가 108.68점(*SD* = 13.40)으로 7.52점 증가하였다. 이 결과는 인성동화를 활용한 협동활동 프로그램의 실시가 유아의 배려적 사고 형성에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표 7>을 보면 인성동화를 활용한 협동활동을 실시한 실험집단 유아들이 비교집단의 유아들 보다 배려적 사고의 모든 하위영역에서 평균이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인성동화를 활용한 협동활동이 배려적 사고의 모든 영역에서 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 2. 인성동화를 활용한 협동활동 과정에서 나타난 유아의 배려적 사고 변화과정

본 연구는 유아에게 협동활동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활동 전과 활동 이후 놀이 중에 나타나는 유아의 언어와 행동을 분석하여 협동활동의 효과를 검증한 결과 유아의 배려적 사고에 따른 언어적 표현과 행동에 변화가 나타났다. 협동활동 처치 전과 처치 후 유아들의 배려적 사고 변화과정은 다음과 같다.

〈표9〉 유아들의 배려적 사고 변화과정

	무시하기	욕심내기	경쟁심 갖기
<b>기존의 모습</b>	· 어려움에 처한 친구의 도움과 의견을 무시하며 자신의 의견만 고집하여 갈등상황이 나타나는 모습 예) “내 마음이야”, “너 때문에 그랬어”	· 교구에 소유욕을 가지고 친구와 갈등하는 모습 예) “나도 필요하다고”, “재 주지마”	· 타인을 이해하지 못한 채 놀이시 주도권을 가지고 자신의 주장만을 펼치며 공격적인 모습 예) “이거 시합 아니야”, “너 다시해”
<b>변화된 모습</b>	· 자신을 이해하면서 타인과 다름을 인정하고, 타인의 우수한 재능이나 태도를 긍정적 언어들로 표현하는 모습 예) “그럼 이거 같이 하자”, “내가 알려줄게”, “oo가 잘한다”	· 자신의 것을 타인에게 양보하며, 타인의 호의에 대해 긍정적인 언어들로 표현하는 모습 예) “고마워”, “같이하자”	· 타인을 이해함으로써 갈등 상황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며, 함께하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 예) “미안해”, “그렇게 말하면 oo이 속상하잖아”

1) 기존의 모습

(1) 무시하기

협동활동 처치 전 유아들은 또래의 의견 혹은 생각을 존중하거나 인정하는 모습을 볼 수 없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또래와 놀이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주장만을 내세웠고, 갈등이 발생했을 시에도 해결하려 하기 보다는 자리를 회피하거나 상대방의 말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또래와 동등한 관계가 아닌 자신의 주도권을 유지하며 놀이를 진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민준이와 하민이는 수·조작 영역에서 블록을 가지고 놀이하고 있다.

민준: 우리 지붕 만들자 (하민이가 만들고 있는 집 모양 블록 위에 블록을 올려놓는다)

하민: (블록을 만지작 거리며) 쏘 이상한데. 이거 안할래.

민준: 지붕 해야돼! (블록박스로 달려간다)

하민: 아 김민준 가면 나 혼자네, 혼자네 심심한데. 나 누구랑 놀지? 이거 혼자하면 어려운데.

야, 박하민 이거 같이 만들자. 나 힘들어.

민준: (설명서를 가져와 책장을 넘기면서) 야, 이거 만들자.

하민: (앞장으로 넘기며) 아니 여기!

민준이와 하민이는 책으로 힘겨루기를 하다가 결국 책이 찢어진다.

민준: 너 때문에 책 찢어졌어! 트릭은 어렵잖아 나 안할래.

하민: 내 마음이잖아!

민준: 어려운데 어떻게 만들어.

하민: 아, 내 마음이잖아!

(참여관찰, 2014. 6. 2)

은동, 민준, 하민이는 수·조작 영역에서 블록으로 집 모양을 만들고 있다. 그러던 중 하민이가 은동이의 블록을 의도치 않게 망가뜨린다.

은동: 야, 왜 부시니? 너 때문에 사람이 다쳤잖아.

민준: 왜 이렇게 했어 김은동?

은동: 하민이가 그랬어, 박하민이 부셨어.

하민: 내가 같이 지은건데, 지붕이랑 집이랑 다시 지은건데, 니가 한거 아니잖아.

조금 뒤, 하민이가 혼자 부서진 집을 완성한다.

은동: 아, 이게 왜 자꾸 쓰러지니 이거 어떡해? 도와줘.

민준이와 하민이는 다른 영역으로 자리를 옮긴다.

(참여관찰, 2014. 6. 2)

유아들은 주로 타인과 함께 놀이하는 가운데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려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자신의 주장을 펼치면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기 보다는 “내 마음이야”, “너 때문에 그랬어”와 같이 갈등상황이 일어난 까닭을 타인의 탓으로 돌리며 다른 사람의 입장을 배려하지 않은채 무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부분의 유아들은 이러한 문제상황의 해결방법으로 교사에게 타인의 잘못을 이르는 행동을 반복하였다. 갈등상황이 아닌 혼자놀이 중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하지만 상대방이 도움을 거절하거나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배려적 사고가 형성되지 않아 유아는 ‘함께’하는 놀이보다 놀이구성물의 완성에 더 치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에 연구자는 유아에게 ‘함께’ 놀이할 수 있도록 하며 상대방의 마음을 생각할 수 있는 즉 감정이입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이야기 하는 시간을 가졌다.

## (2) 욕심내기

유아들은 친구와 함께 놀이할 때 조건을 제시하거나 혹은 친구와 함께 하기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다. 친구와의 놀이에 함께하려는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채 자신의 놀이영역에 침범한 친구와 갈등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정연, 민호, 은동이가 레고블록을 가지고 놀이를 하고 있다. 정연이가 레고박스에서 블록을 여러 개 꺼낸다. 그 때 민호는 정연이가 레고박스에서 꺼내 놓은 블록 두 개를 가져간다.

정연: 야 왜 가져가 (블록을 자기 쪽으로 가져오며)

민호: 아 왜 나도 필요하다고!

민호는 옆에 있는 은동이를 손으로 툭 건드린다.

민호: (속삭이듯이 손가락으로 정연이를 가리키며) 야 깨 주지마

정연: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정연, 민호, 은동이는 아무말 없이 각자의 레고를 조립한다.

(참여관찰, 2014. 6. 10)

민호는 자신의 블록놀이에 정연이가 가져간 블록이 꼭 필요했다. 하지만 정연이는 민호에게 블록을 주지 않았고 결국 민호는 정연이의 블록을 가져갔다. 민호는 블록을 나눠주지 않는 정연이에게 화가 난 나머지 은동에게 ‘정연이에게 블록 주지마’라고 속삭였다. 자신이 필요한 블록을 친구에게 빌려달라고 이야기 할 수 있었지만 친구의 물건을 말없이 가져가고 타인에게 부

탁하지 못하는 민호의 소극적인 태도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블록을 빼앗긴 정연이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민호의 마음상태가 나타난 상황이다. 이처럼 유아들은 갈등상황에서 자신이 왜 화가 났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화가 난 이유에 대해 이해가 부족했으며 서로 다투거나 논쟁하면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다. 심지어 갈등상황에 제 3자를 개입시켜 자신의 의견을 동조하려는 시도를 보였다.

다음은 자신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는 친구에게 공격적인 언어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상황이다.

민준이와 은동이가 쌓기영역에서 블록놀이를 하고 있다.

은동: (블록을 들며) 이거 민성이 쥐도 돼?

민준: 안돼!

은동: 야, 선생님이 같이 쓰랬어.

민준: 싫단 말야.

은동이와 민준이는 아무말 없이 잠깐 동안의 침묵이 흐른다.

은동: 너랑 안놀아.

민준: (머리 위로 블록을 들면서) 이거 누구 가질 사람?

은동: 나! 그거 나 주면 너랑 같이 놀게.

민준: 싫어 나 너랑 안 놀거거든?

은동이는 블록을 가지고 수조작 영역으로 달려간다.

(참여관찰, 2014. 6. 11)

은동이는 블록이 필요한 민성에게 블록을 주고자 하였다. 같이 놀이하고 있던 민준이에게 블록을 나눠주는 것에 대해 의견을 묻자 민준이는 거절했고 민준이는 “이거 누구 가질 사람?”이라는 말로 전체 유아에게 물어본다. 민준이와 은동이는 서로 블록을 나눠서 사용할 수 있었지만, 상대방의 기분이나 의견을 고려하지 않고 사용된 공격적인 언어와 당사자가 아닌 전체 유아에게 블록을 나눠주고자 했던 회유적인 언어표현으로 오해가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마음이나 상태를 표현하는 감정이입적 사고의 부족과 그에 따른 사고에 대한 행동이 표현되지 못한 것으로 이해된다. 유아들은 타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공격적인 언어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한다. 예를 들어 민준이는 갈등 상황시에 “싫어”, “너랑 안 놀거야”와 같은 언어를 사용하면서 갈등이 더욱 심화 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유아들의 놀이상황은 자신과 놀이하고 싶어하는 타인에 대한 감정이입적 사고 중 연대감 갖기 사고의 부족으로 상대방의 감정이나 생각을 내면화하여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동질감이 부족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배려적 사고가 출현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연구자는 프로그램 진행시 타인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였다.

### (3) 경쟁심 갖기

유아들은 놀이를 하면서 상대방을 놀이에 함께 참여하는 대상으로 생각하기 보다는 경쟁상태로 생각하며 자신보다 타인이 놀이에 주도적이거나 권력을 많이 쥐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놀이

를 중단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유아들은 함께 놀이하기 보다는 각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주장하면서 또래와 의견이 대립되는 모습을 보였다.

지수와 찬영이가 수·조작영역에서 퍼즐 맞추기 놀이를 하고 있다.

찬영: 동시에 맞췄다! (지후를 힐끔 보고) 야 송지후 빨리 안해도 돼 이거 시험 아니야

지수: 알았어 다했다 짜잔 선생님 나 혼자 다했어요.

찬영: 야! 이거 빨리 맞춰서 좋은거 아니라고 너 다시해 그리고 시작 같이 안했잖아 같이 시작해야지.

(참여관찰, 2014. 5. 26)

친구와 같이 놀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구가 이기자 시험이 아니니 다시 하라고 이야기한다. 이것은 타인의 좋은 행동이나 언어를 축하하기, 칭찬하기 등의 가치부여적 사고가 부족한 현상이 나타난 것 이라고 여겨진다. 다음은 자신보다 많은 교구를 소유하고 있는 친구를 보고 경쟁심을 느낀 유아의 모습이다.

다윤이와 윤지가 수·조작 영역에서 블록놀이를 하고 있다.

다윤: 우리 같이 거미부족 만들자.

윤지: 난 다른거 만들거야.

윤지가 상자에서 블록을 꺼낸다.

다윤: 야 왜 너만썩.

윤지: (블록상자를 뒤지면서) 두 개씩 연결 되는거 어딴지?

다윤: 야 너 왜 세모 많아? 선생님 저 찾아주세요 저보다 신윤찬이 더 많아요. 6개.

윤지: 저는 4개 필요해요, (지후에게) 나 4개 필요해. 나 많았었는데 원래는 19개였는데

다윤: (교사에게) 나 신윤찬 보다 더 많이 찾아주세요.

(참여관찰, 2014. 6. 19)

아이들은 함께 놀이를 하면서도 서로 경쟁심을 갖고 있었다. 예를 들어 내가 가지고 있는 장난감 개수보다 친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더 많을 경우 나의 장난감이 친구보다 더 많아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놀이 가운데 대장의 역할을 하여 주도권을 가지려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또한 놀이 중에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가거나 승부에서 질 것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타인의 기분이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주장을 공격적으로 펼치며 놀이를 해산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아이들이 또래의 의견을 존중하지 못하고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며 경쟁심을 가졌던 것은 타인과 함께 의견을 모아 협력하며 놀이하는 경험의 부족으로 볼 수 있으며, 타인을 배려하지 못한 채 자신의 입장만을 내세우려는 사고에서 비롯되었다고 여겨진다.

본 연구자는 프로그램 실시 전 유아들의 놀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언어적, 행동적 표현을 관찰하고 녹화하여 전사하면서 아이들의 배려적인 사고 형성을 위해 어떠한 발문을 해야할지 생각하며 수업을 계획해 나갔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유아들의 놀이를 관찰하고 참여한 부분은 유아의 배려적 사고 향상을 지원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유아들은 점차 협동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마음을 갖고 배려적 사고가 향상되는 모습을 보였다.

## 2) 협동활동 과정 속에서 변화된 모습

### (1) 다름을 인정하기

기존의 아이들은 친구들과의 갈등상황이 발생했을 때 교사에게 이르거나 친구의 말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유아들은 배려를 행동으로 보여 주었고, 또래와 함께 문제상황에 필요한 요소를 찾고 적절한 선택을 하거나 오류를 수정하며 문제를 해결해 가는 모습을 보였다.

선인장 호텔 뒷이야기 꾸미기 활동 중에 강주, 라현, 보현이가 그림을 그리고 있다.

라현: 선생님 이거 다하면 누구꺼 맨 앞에 놓을거예요?

교사: 어떻게 하면 좋을까?

보현: 내꺼 제일 앞에! (책 표지 뒤에 자신의 그림을 끼워 넣는다)

라현: 아 왜! 내가 제일 먼저 할거야.

교사: 애들아, 우리 다른 조원들 생각도 물어볼까? 어떻게 하면 좋겠니?

강주: 제일 처음에는 선인장 씨앗이니까 보현이꺼 먼저 넣어요.

라현: 가위바위보 해요.

보현: 씨앗이 제일 앞이니까 내꺼 먼저 넣자.

라현: 그래 그러자.

보현: 그래.

(참여 관찰, 2014. 6. 24)

라현이는 자신이 활동한 내용을 책의 맨 앞 장에 넣고 싶었지만 친구들과의 의견조율을 통해 자신이 한발 물러서 타인을 배려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유아들은 협동활동 프로그램 가운데 활동의 목표를 완성하기 위해 자신의 희생이 불가피한 부분이 있었다. 예를 들면 유아들은 공동으로 책 한 권을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을 진행하는 중에 자신의 욕심을 배제하고 타인의 의견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연구자는 유아의 의견을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게끔 하였고, 유아의 생각을 존중하려고 노력하였다. 유아들은 또래와 갈등하면서 연구자의 제지 또는 제안 없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였고 타인을 배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다음은 프로그램 진행 중 놀이에서 나타난 대안 제시의 모습이다.

다빈, 단비는 카메라 삼각대를 관찰하고 있다.

단비: 우와, 이거 신기해 우리집(블록으로 만든 집)도 보여!

수진: (단비가 잡고 있는 손잡이를 만지며) 나도 볼래!

단비는 손잡이를 놓지 않는다.

수진: 단비야, 이제 나도 볼래.

단비: 그래 그럼, 이거 같이 잡아.

다빈: 우리 한번씩 돌아가면서 집 보자, 어때?

수진, 단비: 그래.

다빈: 근데 우리 집 만든거 안 보인다 어떡하지?

단비: (삼각대) 높이를 낮추자, 이거 내리자.

수진: 아 그럼 되겠다.

단비, 다빈, 수진이가 함께 삼각대 다리를 낮춘다.

(참여관찰, 2014. 9. 30)

유아들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는 와중에 발생하는 갈등뿐만 아니라 놀이 중 타인과 어려운 상황을 직면했을 때에 갈등이 발생하였다. 이때 유아들은 서로 의견을 교환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였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유아들은 전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생각만을 이야기하였으나 갈등이 발생했을 시 대안을 제시하거나 함께 의견을 공유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프로그램 안에서 타인과 함께 목표를 달성하게 하는 기회와 협력하는 기회를 유아에게 제공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아이들은 공격적인 언어 표현에서 자신의 감정을 다소 완화시켜 솔직하게 이야기 하였고, 친구들의 제안에 “그래”라고 대답하는 감정이입적 사고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자신만을 강조했던 전과 달리 같은 모듈원끼리 협력하는 활동을 통하여 협동심을 기르고, 그 안에서 타인을 배려하면서 사회적 공동체 경험을 했다고 볼 수 있다. 프로그램 종료 후에 아이들은 타인의 능력을 높이 인정하면서 긍정적인 언어로 칭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또래와의 협동적인 활동을 통하여 자신과 타인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그 가운데 서로의 능력을 인정하며 자신이 맡은 일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처럼 아이들은 서로의 재능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또래간에 친밀감이 형성되었다. 또한 활동을 하는데 소극적이었던 유아들도 또래의 칭찬과 격려로 발전된 모습을 보였고, 자신의 의견만을 주장했던 아이들과 욕심이 많았던 아이들도 또래에게 배려적인 모습을 나타내어 허용적이고 완만한 또래관계를 유지하였다. 즉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은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갈등상황에 능동적인 태도로 타인에 대한 배려적 사고를 형성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 (2) 배려하기

기존의 아이들은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주장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다.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점차 유아들은 자신의 것을 양보하고 나눠 사용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이는 타인과 함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타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로 행동적 도움을 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으뜸혜엄이 만들기 시간에 시우, 지후, 진희가 모듈에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시우: 야! 나도 색연필 쓸거야, 너무 멀잖아 (색연필 통을 자신 쪽으로 끌어 당긴다)

지후: 그럼 나한테 멀잖아!

시우: 나 손 안 닿는데 어떡해.

진희: 나 다 썼으니까 너네가 이겨써.

지후: 고마워.

(참여관찰, 2014. 6. 20)

공동으로 사용하는 색연필을 시우와 지후는 서로 자신의 가까이에 두고 사용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이로 인해 갈등상황이 빚어졌지만 친구들에 비해 활동을 빨리 마친 진희의 배려로 시우와

지후는 갈등없이 활동을 진행할 수 있었다. 이는 어려움과 문제에 처한 친구들을 도와주려는 배려적 사고 과정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걱정인형 만들기 활동시간에 수진, 현희, 다희가 인형을 만들고 있다.

수진: 나 풀이 잘 만나와.

현희: 자 여기! 이긴 잘 나와!(풀을 주면서)

현희: 수진아, 필요하면 이것도 써(다른 풀을 건네주며) 풀 안 나오면 우리 이제 풀 필요없지?

수진: 나 풀 좀 줄래? 풀이 만나와 현희야.

현희: (교사에게 풀을 주면서) 수진이꺼 이긴 굳어버렸나봐요.

다희: 자, 이거써 내건 잘나와, 수진아 이긴 나와.

수진: 현희야 너 다했니?

현희: 응, 다했어.

수진: 나 잘 못하겠어. 같이 하자.

현희: 그래, 내가 도와줄게. 필요하면 내꺼 사용해. 자! 여겼어 내 풀 이거 잘나와 내 풀.

(참여관찰, 2014. 7. 17)

프로그램 초기에 유아들은 소유욕을 가지고 자신의 것을 지키고자 하였지만 프로그램이 진행될수록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고 모둠원끼리 협력하는 활동을 통하여 유아는 물건을 공동으로 함께 사용하고 양보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자신의 것’을 강조하면서 소유욕을 보인 이전과 달리 타인을 배려하는 모습으로 친구들과 함께 물건을 공유하며 즐겁게 활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는 본 프로그램이 유아들에게 협동을 통하여 타인을 배려하는 기회를 제공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자신의 주장만을 내세우며 소유물에 욕심을 부렸던 이전과 달리 유아들은 점차 자신의 것을 타인에게 양보하기도 하고 타인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면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하였다. 프로그램 처치 전 유아는 도움을 받고도 감사를 표현하지 않고 타인의 도움을 무시하거나 지나쳐 버렸었지만, 프로그램 실시 후 유아들은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타인에게 솔직하게 표현하면서 원만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다.

프로그램 처치 전 유아들의 갈등상황에 교사의 중재가 필요하였지만 프로그램이 진행될수록 교사의 개입 또는 중재없이 유아는 또래와 협력적인 놀이를 통해 타인을 배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본 프로그램에서 연구자는 유아들의 배려적 사고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신의 감정을 타인에게 솔직하게 표현하면서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동화를 이용하였고 주인공에게 감정이입 된 느낌을 언어로 표현해 보도록 하였다. 더불어 모둠을 이루어 활동하면서 유아는 상대방에게 고마움, 화남 등의 다양한 감정을 표현해 보도록 하였다. 이를 통하여 유아들은 또래와의 긍정적인 관계 속에서 타인에 대한 배려를 경험하였고 타인의 배려를 받은 유아들은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며 상대방에게 적극적이고 따뜻한 태도를 보였다.

### (3) 함께하는 우리

프로그램에 참여한 유아들은 활동이 진행되면서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의 주장을 고집했던 초기의 모습을 벗어나 점차 타인의 입장을 생각하고 자신의 의견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갈등을 해결해 나갔다. 점차 유아들은 타인을 이해하며 배려적인 사고의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유아들은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려는 시도를 많이 보였다. 유아들은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자신이 그와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떠한 감정을 느꼈을지 생각하고 타인에게 공감, 칭찬, 위로의 말을 하였다. 또한 타인에 대한 감정이입을 통해 갈등상황이 완화되었다. 즉 자신의 주장만 내세웠던 기존의 모습에서 벗어나 점차 ‘함께’하는 공동체 생활 안에서 이해하고 규범을 지키려는 시도를 보였다.

다희: 수진, 단비가 역할놀이 영역에서 놀이를 하고 있다.

보윤: (해마모형을 들고)오늘 해마 친구가 기분 좋은 날이야, 우리 놀이동산에 가서 솜사탕도 먹고 그랬지.

다희: 어 그랬지, 우리 놀이 기구도 탔지.

보윤: 쭈욱!(해마 인형을 떨어뜨린다) 아이코 떨어졌다.

다희: 괜찮아 우린 솜사탕도 먹고 아이스크림도 먹었으니까.

보윤: 우리 아이스크림 먹자.

다희: 있잖아, 나 어제 감기에 걸려서 목이 너무 아팠어.

보윤: 진짜? 아팠겠다.

다희: 지금도 아파, 물 마시고 올게.

보윤: 그래 잤다와.

(참여관찰, 2014. 9. 29)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유아들은 점차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아이들은 “좋았겠다”, “부럽다” 등의 언어적 표현으로 타인의 입장이 되어 생각하였다. 동화의 내용 중 몸이 불편한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보는 이야기 나누기 시간에 자신이 몸이 불편했다면 어땠을지 상상하면서 “불편할 것 같아요”, “무서울 것 같아요”라고 이야기하며 “앞으로 잘 도와줄 거예요”라고 이야기 하며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배려를 실천하고자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연구자 일지, 2014. 7. 17)

유아들은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또래의 행동에 대해 즐거워하거나 공감하고 때론 위로하기도 하였다. 또한 또래의 의견이나 생각을 존중하고 인정함으로써 또래간의 갈등 없이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졌다.

이 외에도 유아들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배려적 사고 중 규범적인 사고의 한 예로 타인이 정한 규칙이나 예의를 지켜 바람직하거나 긍정적인 결과가 이뤄지길 바라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게임 활동시에 모둠원이 정해진 규칙이나 규범을 따르기를 기대하였고 이 모습은 놀이 상황에도 나타났다. 유아들은 또래에게 강압적으로 규범을 따르라고 지시하는 것이 아닌 규범을 권하면서 회유하는 말로 표현하는 모습을 보였다. 교실 안에서 지켜야 할 약속 또는 친구 사이에서 해서는 안 될 말과 같은 규범을 지키기를 기대하며 언어로서 표현하는 모습을 보였다. 즉 타인과 함께 하는 공동체 생활에서 지켜야 할 규범을 지키기를 기대하는 태도를 볼 수 있었다.

유아들은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과정 중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말하고 또래의 의견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 가운데 규범적 사고로 협동활동시 지켜야 할 약속, 교실에서 지켜야 할

규범들을 생각하며 모든 유아가 규범을 지키기를 기대하고 상대방을 설득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감정이입적 사고로 “의주가 속상하잖아”, “너한테 그렇게 말하면 기분이 좋아?” 라는 표현을 통해 상대방의 기분을 고려하여 갈등을 해결해 나가기도 하였다.

프로그램이 진행 되기 전 혹은 초기에 유아들의 비협력적인 모습과 갈등상황이 빈번하였지만, 유아는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면서 타인을 배려하는 태도로 갈등상황을 해결하였으며 점차 또래와 함께 어울리고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본 프로그램은 유아들의 또래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뿐 만 아니라 사회적 경험을 통하여 자신을 이해하고 타인의 감정을 존중할 줄 아는 유아의 배려적 사고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인성동화를 활용한 협동활동이 유아의 배려적 사고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결과를 해석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성동화를 활용한 협동활동 프로그램이 유아의 배려적 사고 형성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집단 유아들과 비교집단 유아들의 배려적 사고 사후검사 점수를 비교한 결과 실험집단 유아들의 점수가 비교집단 유아들의 점수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성동화를 활용한 협동활동 프로그램을 경험한 실험집단의 유아들이 비교집단의 유아들보다 배려적 사고가 향상되었고, 이는 본 프로그램이 유아의 배려적 사고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배려, 존중, 협력, 나눔, 질서, 효의 내용을 충족하는 인성동화를 유아에게 들려주고, 동화의 내용과 관련된 이야기 나누기 활동을 통해 다양한 각도에서 배려적 사고를 직·간접적으로 체험하게 하였다. 이후 인성동화의 내용과 연계한 협동활동으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또래와 작업하면서 배려적 사고의 신장을 도왔다. 즉 단순히 동화를 듣고 난 후 이야기 나누기를 통한 간접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협동활동을 통한 직접적인 경험이 유아의 배려적 사고를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동화를 통한 이야기 나누기 활동이 유아의 배려적 사고 수행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를 지지하며(강희경, 2013), 더 나아가 동화의 내용과 연계된 협동활동으로 유아의 배려적 사고 신장을 도모하는데 의의가 있다. 이는 철학동화를 활용하여 유아들간의 대화를 통해 철학적 개념을 탐색하도록 하는 철학적 탐구활동이 유아의 배려적 사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하고 있으며(이춘희, 2007), 본 프로그램은 타인과 함께하는 협동활동이 타인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게 한다는 Lyman와 Foyle(1993)의 견해를 입증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유아의 배려적 사고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협동활동은 점차 자기중심화 혹은 탈 공동체화 되어가는 현대사회의 유아들에게 사회적 공동체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인성동화를 활용한 협동활동 프로그램은 유아교육현장에서 유아에게 올바른 인성교육과 배려적인 사고를 형성하게 하는 실질적인 자료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인성동화를 듣고, 동화와 연계된 협동활동의 형태를 한 영역의 활동에 국한하지 않고 미술, 뒹 이야기 꾸미기, 동극, 요리, 게임 등과

같이 통합적으로 제공하였다. 이는 통합적 인성교육 활동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및 정서지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결과와 유사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이진희, 2014).

배려적사고의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가치부여적 사고’, ‘규범적 사고’, ‘정서적 사고’, ‘감정이입적 사고’, ‘행동적 사고’ 모든 영역에서 집단 간 사후 검사 점수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배려적 사고의 첫 번째 하위 영역인 ‘가치부여적 사고’ 영역은 실험집단의 사후검사 결과 배려적 사고의 하위 영역 중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실험집단의 사전·사후검사의 점수를 비교했을 때 점수가 가장 많이 향상된 영역이다. 또한 비교집단 역시 배려적 사고의 하위 영역 중 상대적으로 점수가 가장 많이 향상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인성동화를 듣고 동화의 내용에 대해 이야기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동화의 주인공에 감정이입 되어 타인의 정서를 간접적으로 이해하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그 결과 유아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가치를 높게 인정하거나 소중히 여기게 된다. 따라서 실험집단 뿐만 아니라 인성동화를 통해 이야기 나누기 활동을 진행한 비교집단 역시 가치부여적 사고가 향상되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동화를 통한 이야기 나누기가 유아의 배려적 사고 수행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강희경, 2013). 가치부여적 사고의 향상은 인성동화와 연계한 협동활동 속의 모듈원과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또래가 적절한 의견을 제시할 경우, 이를 높이 인정하기도 하고 타인의 의견이나 생각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하면서 이루어진 결과라고 여겨진다. 이는 협동활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신있게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는 기회를 부여하여 공동체 의식을 심어준다는 연구 결과와 유사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이현경, 2000).

두 번째 ‘규범적 사고’ 영역은 실험집단의 사전·사후 검사에서 점수의 향상이 상대적으로 저조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유아에게 철학적 탐구공동체 활동을 실시한 결과 배려적 사고의 하위목표인 규범적 사고가 실험집단, 비교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이춘희, 2009). 유아는 유아교육기관에서 생활하면서 교사와 또래 등 주변 사람과 상호작용하며 기본생활습관을 습득하고, 사회에서 통용되는 규범들을 몸소 체험하고 익힌다. 즉 유아는 인성동화를 활용한 협동활동 프로그램이 적용되기 이전에 유아 주변 환경의 영향으로 이미 규범적 사고가 형성되었던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후검사 결과 점수가 향상될 수 있었던 이유는 협동활동 가운데 유아가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모듈원과 소통하면서 협동활동시 지켜야 할 규칙을 정하고 제시된 규칙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규칙을 정하는 과정을 통해 규범적 사고를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선 유아 자신 뿐만 아니라 타인도 정해진 규칙이나 예의를 지켜야 함을 알고, 타인이 규범을 지키기를 기대하며 언어로서 표현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협동적 동화 재구성 활동이 유아의 사회적 기술인 자기주장, 자기조절, 순응의 요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엄민옥, 2010). 즉 협동활동이 유아들의 공동체 생활에서 규범에 순응하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조절한다는 점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세 번째 ‘정서적 사고’ 영역은 사전검사 결과 배려적 사고의 하위 영역 중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본 프로그램이 적용되기 전 유아는 타인의 기분이나 감정을 이해하려는 경험의 부족과 더불어 자신의 주장만을 펼치는 자기중심적 태도로 인해 정서적 사고의 점수가 낮게 나타났

다고 생각된다. Selman(1980)의 사회적 역할수용 발달단계에 따르면 자기중심적 미분화 단계인 만 4세 유아는 자신의 입장과 다른 사람의 입장을 구별하지 못하며, 어떤 상황에서 상대방이 어떻게 느끼겠는가를 물어보면 자신의 느낌만을 이해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전조작기 시기인 만 4세 유아들은 타인과 함께 하는 협동적인 작업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예상되었지만 인성동화를 통해 유아는 동화 속 주인공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이해하고, 타인이 처한 상황을 판단하며 정서적 사고가 향상되었다. 또한 협동활동을 통하여 모둠원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과정을 통해 정서적 사고를 경험함으로써 만 4세 유아에게도 협동적인 작업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Stein과 Trabasso(1989)의 만 4세 유아도 그림 속이나 이야기 속 주인공들이 어떠한 정서적 경험을 할 것인가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견해(정옥분, 2008, 재인용)를 지지하며, 만 4세 유아도 타인과 정신세계에 관련한 대화들을 보다 빈번하게 나눌 수 있다는 연구결과와 유사하다(송정, 2007). 본 연구는 만 4세 유아에게 협동활동을 통해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는 경험을 제공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사회적·인지적으로 성숙한 만 5세 유아에게 협동활동이 제공되었던 기존 연구들과 달리 만 4세 유아에게 협동활동을 적용함으로써 어린 연령의 유아에게도 협동활동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네 번째 ‘감정이입적 사고’ 영역은 다섯가지 하위 영역 중 실험집단의 사후 검사 점수 향상이 두 번째로 높았다. 유아들은 인성동화를 듣고 주인공에 대해 감정이입하는 경험 뿐만 아니라 “내가 주인공이었다면?”, “도움을 받는 친구의 마음은 어떨까?”라는 발문을 통해 나와 타인의 관계를 사고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고 이로 인해 동화 속 인물들의 상황에 따른 희노애락을 느끼며 감정이입적 사고가 향상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는 동화가 주인공이 겪게 되는 갈등과 어려움에 참여하여 생각해 보게 함으로써 유아의 사회·정서적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김유미, 1998; 이기영, 2006)결과와 같은 맥락이며, 동화는 유아에게 감정이입적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타인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동기를 유발시킨다는 이기영(2006)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본 연구에서 유아들은 인성동화 속 인물과 상황에 감정이입을 하고, 동화의 내용과 부합하는 협동활동을 통해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입장을 생각하는 의견질충 과정을 통해 타인에 대한 감정이입적 사고가 향상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섯 번째 ‘행동적 사고’ 영역은 다섯가지 하위 영역 중 사전·사후 검사에서 가장 높은 점수가 나타났으며, 점수가 가장 많이 향상되었다. 유아가 타인에 대해 배려적인 사고를 하면서도 행동으로 실천 되지 않는다면 배려는 단지 사고에서 그치고 만다. 행동적 사고는 배려적 사고를 함과 동시에 사고가 행동으로 출현하는 것을 말한다. 본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유아들은 또래와 함께 문제상황에 마주했을 때 적절한 선택이나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협동활동에서 유아가 모둠원들과의 긍정적인 상호의존을 이루기 위해 사회적 기술을 습득한다는 한국어린이육영회(1991)의 견해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유아들은 협동활동을 통하여 또래와 긍정적인 상호의존을 이루고 적절한 선택이나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배려적인 사고가 행동으로 나타났음을 의미한다. 행동적 사고는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기 위해 타인을 돕거나 도우려고 하는 ‘친사회적 행동’과 부분적으로 같은 맥락이라 볼 수 있다(김수혜, 2013). 또한 유아는 가까이 있지 않은 사람의 고통을 상상해서 감정이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자신의 눈으로 직접 고통 받는 사람을 볼 때 감정이입이 가능하다고 하였다(Hoffman, 1987). 유아들은 동화를 통하여 타인에 대한 감정이입과 함께 동화 속 인물들의 배려적인 사고를 내면

화하고 협동활동을 통해 타인과 직접 마주하면서 배려를 행동적으로 표현하였다고 생각한다. 유아들은 협동활동으로 모둠원과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작업했고 어려움에 처한 모둠원에게 도움을 주며 함께 노력했다. 이는 유아가 타인에게 자발적으로 도움을 주어 공동의 목표를 이루는 과정으로 심리적인 보상감을 얻게 되어 타인을 위한 배려를 행동적으로 실천하게 되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즉 협동활동을 통해 집단내에서 다른 유아와 과제를 함께 수행하고 성공의 경험을 갖게 됨으로 자아증진감을 발달시킬 수 있다(Lyman & Foyle, 1993)는 견해와 일치한다.

배려적 사고에 대해 살펴본 것을 종합해 볼 때, 인성동화를 활용한 이야기 나누기 활동을 통해 타인을 이해하려는 시도와 배려적인 사고를 내면화 하는 과정을 거쳤으리라 생각된다. 또한 직접적인 협동활동을 경험하면서 배려적 사고의 형태가 행동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본 프로그램은 유아의 배려적 사고 향상에 효과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행동적 사고’ 영역은 협동활동 가운데에서도 게임의 활동형태가 유아에게 공동체 의식과 협동심을 불러 일으켜 유아의 배려적 사고에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Bandura(1969)는 또래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형태의 행동을 학습하게 하고, 상황에 따라 적합한 행동을 알려줌으로써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정옥분, 2008, 재인용).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협동활동을 통한 또래간의 상호작용이 배려적 사고와 더불어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인성동화를 활용하여 협동활동 속에 나타나는 유아의 배려적 사고 변화과정을 알아보기 위하여 프로그램 실시 전과 프로그램 실시 후에 나타나는 배려적 사고의 언어적, 행동적 변화를 관찰하고 분석하였다. 본 프로그램이 진행 될수록 유아의 배려적 사고가 향상됨과 동시에 타인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과 태도를 보였다.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전 유아들은 또래와 함께 협동적으로 놀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래와 함께하는 가운데 혼자놀이를 하고 있었다. 갈등상황이 발생했을 때 유아들은 “내 마음이야”, “너 때문에 그랬어” 라고 이야기 하며 갈등의 원인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렸고, 자신의 주장만을 내세워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갈등의 해결방법은 교사나 다른 친구에게 친구의 잘못을 이르거나 갈등상황이 해결되지 않은채 놀이가 종료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모습은 한상미(2002)의 협동 미술 활동 초기에 유아들이 또래와 함께 한다는 의미를 알지 못했고, 편을 가르며 갈등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연구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즉 협동활동의 경험이 부족했던 아이들이 갈등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유아들의 모습은 전조작기 시기의 자기중심성을 이유로 들 수 있다. 유아들은 자신에 대한 이해와 타인에 대한 배려적 사고의 부족으로 갈등상황이 빈번하게 나타났고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지 못하였다. 교사는 유아들의 놀이상황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유아가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이해와 더불어 타인의 감정을 파악하고 타인에 대한 배려적 사고와 함께 원만한 또래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프로그램 시작 전에 나타난 유아의 또 다른 모습은 또래가 도움을 요청할 때나 도움이 필요한 것처럼 느껴질 때 타인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자리를 회피하는 모습이었다. 이는 동일연령 집단에서는 그 나이에 기대되는 행동을 설정하여 서로 경쟁적으로 의식하는 경향이 있으며, 의사소통 기술과 사회적 기술, 동기부족으로 개별활동이 많다는 연구결과(고옥희, 2003)와 유사한

맥락이다. 이러한 갈등은 타인에 대한 배려적 사고의 부족과 타인과 함께 하는 협동활동 경험 부족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유아들은 한정된 교구에 대한 욕심과 “내가 더 많이 가질거야”, “이거 다 내거야” 라고 이야기 하는 등 타인에 대한 경쟁심을 갖고 있었다. 교사는 일상생활에서 유아들로 하여금 배려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도록 또래와 함께 하는 협동형태의 교육 활동을 계획함으로써 타인에 배한 배려, 자신에 대한 이해, 협동의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해야한다.

본 프로그램은 유아들의 배려적 사고의 향상을 위하여 배려, 존중, 협력, 나눔, 질서, 효의 내용에 충족하는 인성동화를 들려주고 그에 따른 협동활동으로 유아들에게 타인과 함께 마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뿐만 아니라 또래와 모둠을 구성하여 타인에 대한 상호작용의 기회와 함께 배려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프로그램 초기에는 유아들의 협동경험 부족으로 프로그램 처치 전과 같은 갈등과 어려움을 경험하였지만, 프로그램의 회기가 거듭될수록 유아들은 서로 협력하여 타인을 이해하려는 시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협동활동에 참여하여 타인과 의견을 절충하는 과정을 통해 타인의 권리와 요구를 존중하면서 타인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자기주장의 능력이 증진된다는 연구결과(교육과학기술부, 2012)와 일맥상통한다. 또한 자기중심성이 강한 만 4세 유아들에게 협동활동을 적용함으로써, 만 4세부터 여러 또래와 긴밀하게 함께하는 놀이가 시작되고 보다 확대, 심화되는 시기라는 연구결과(김원운, 2014)를 지지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유아들이 배려적 사고에 변화를 나타낸 것은 본 프로그램이 인성동화를 통하여 타인에 대한 간접적인 이해와 협동활동의 경험으로 타인에 대한 배려를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기 때문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유아들은 프로그램이 진행 될수록 문제 상황에 대안을 제시하며 타인과 함께 오류를 수정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 유아들은 협동활동시 정해진 규칙에 대하여 자신은 물론 타인도 함께 지키기를 기대하면서 규범적인 배려적 사고가 출현하였다. 이처럼 유아들이 점차 타인과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 할 수 있었던 것은 본 프로그램의 4회차에 어려움에 처한 친구를 타인과 협력하여 도와주는 활동, 20회차에 친구와 함께 하는 게임활동 등을 통해 타인의 도움을 받음으로써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을 경험해 보면서 협동심을 기를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프로그램 처치 후 유아들의 놀이 모습에서는 타인에 대한 배려적인 사고와 더불어 보다 심화된 타인에 대한 감정적 표현과 행동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가 협동하는 미술 활동 과정에서 또래에게 재료를 건네주거나 타인이 미술활동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면서 친사회적 능력이 향상되었다는 연구결과(양새롬, 2013)와 유사한 맥락이다. 즉 유아들은 협동활동에 참여하면서 공동체 의식을 경험하고 타인에 대한 이해를 통해 배려를 행동적으로 실천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유아들은 타인에 대한 경쟁심을 가지고 있던 전과 달리 점차 타인을 이해하려는 모습과 타인의 긍정적인 면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유아가 협동활동에 참여하면서 공동체 의식을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유아에게 배려적인 교실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하여 학급 모임, 이야기 나누기, 인성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타인에 대한 관계형성을 촉진시킬 수 있었다고 보고한 Vincent(2002)의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인성동화를 활용한 협동활동이 유아의 배려적 사고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유아는 또래를 배려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발달하여 또래와 긍정적인 관계형성은 물론 유아 자신의 올바른 인격형성까지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을 통하여 유아는 타인을 배려함으로써 배려적 사고의 향상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기대를 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Bandura, 1986; Bandura & Schunk, 1981).

본 연구는 인성동화를 활용한 협동활동을 적용하기 전과 후로 나누어 배려적 사고 점수를 집단 간 비교하였고, 놀이상황을 관찰하면서 유아의 배려적 사고가 언어적·행동적으로 표현되는 상황을 질적으로 분석하였다. 즉 양적인 데이터의 변화뿐만 아니라 유아들의 다양한 표현과 또래간 상호작용 모습을 역동적으로 기술하면서 배려적 사고가 변화되는 과정을 심도 있게 파악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본 연구는 현대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유아들에게 또래와 함께 할 수 있는 협동활동을 제공하였다. 유아들에게 인성동화를 들려주고 협동활동을 통한 공동체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타인에 대한 배려적 사고를 형성하도록 도와주는 자료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유아들의 배려적 사고 수행에 관하여 교사가 공동체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유아의 평소행동을 관찰함으로써 이루어졌다. 학급에서 함께 생활하는 또래 유아에 대한 배려적 사고를 측정했고, 유아의 행동에 대한 평가를 교사의 관찰에 의존했다는 점에서 교사의 주관적인 편견이 개입될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또한 배려적 사고 검사도구는 38문항으로 담임교사가 비교적 많은 문항을 여러 아이들을 대상으로 관찰하기에 어려움이 수반되었으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좀 더 객관적이고 용이한 배려적 사고 검사도구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배려적 사고는 유아교육기관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수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환경적 요인을 고려한 도구의 개발과 가정과 연계한 배려적 사고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본 연구는 만 4세 유아에게 인성동화를 활용한 협동활동을 적용하였다. 즉 단일 연령을 대상으로 연구했다는 한계점이 있다. 혼합연령의 학급에서는 또래가 아닌 여러 연령을 마주할 기회가 제공되며, 높은 연령과 낮은 연령의 유아가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배려적 사고가 형성될 수 있기에 혼합연령의 학급에 협동활동을 적용함으로써 연구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이 각기 다른 어린이집이었지만 교사경력, 유아 월령, 사전검사 등의 동질성 검사 결과 동질집단으로 나타났다. 각각의 어린이집에서 유아들의 생활 방식과 일과가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쳤으리라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동일한 유아교육기관에서 유아들을 대상으로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넷째, 본 연구는 인성동화를 활용한 협동활동이 유아의 배려적 사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다. 유아는 협동활동을 통해 배려적 사고뿐만 아니라 자기조절능력, 언어능력, 문제해결력 등이 함께 발달되었을 것이라 사료된다. 후속연구에서는 인성동화를 활용한 협동활동이 유아의 다른 발달 영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 참고문헌

- 강희경 (2013). 동화를 통한 이야기 나누기가 유아의 배려적 사고 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교육회 (2003). 통합적 미술협동작업에서 집단구성유형에 따른 사회적 유능감과 또래상호작용의 비교.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교육부 (1993). **유치원 교육과정 해설**. 서울: 교육부.
- 교육부 (2000). **유아의 사회적 능력발달 교육활동 자료**. 서울: 교육부.
- 교육과학기술부 (2008). **유치원 교육과정 해설 (Ⅲ) : 표현생활, 언어생활, 탐구생활**.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과학기술부 (2012). **유치원 기본과정 내실화를 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김수혜 (2013). 인성교육 관련 그림책을 활용한 토의활동이 유아의 자아개념 및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옥 (2000). 유아의 협동작업을 위한 교수-학습 모형 연구 : 대안적 학습형태의 설계. **유아교육연구**, 20(2), 201-222.
- 김유미 (1998). 동화활동 시 교사의 질문유형에 따른 유아의 언어 및 사고능력 발달비교.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원운 (2014). 숲에서 이루어지는 만 4세 유아의 놀이특성.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원, 민희숙, 방승연 (2014). 누리과정에 근거한 그림책을 활용한 인성교육활동이 유아의 리더십과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학회**, 34(1), 227-249.
- 박미주 (2009). 모래놀이에서의 유아협동행동에 관한 질적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혜진 (2012). 협동적 요리활동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정숙, 김정원, 남규 (2006). 그림책 중심의 문학교육 프로그램이 유아의 문학적 능력과 흥미에 미치는 영향. **한국유아교육학회**, 26(6), 103-127.
- 송 정 (2007). 만 4세 유아의 사회극놀이에서의 정신상태 용어와 마음이론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양새롬 (2013). 미술요소 중심 협동미술활동이 유아의 친사회성, 언어능력, 그리기표상능력에 미치는 효과.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엄민옥 (2010). 협동적 동화 재구성 활동이 유아의 어휘력과 사회적 기술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기영 (2006). 그림책을 활용한 유아 사회 정서 교육프로그램 개발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성호 (2014). 미국 학교 인성교육의 동향과 시사점. **한국교육**, 41(3), 35-59.
- 이수기 (2005). 협동미술 활동이 유아의 자기조절능력과 조망수용능력에 미치는 효과.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순옥 (2014). 덕목이 포함된 그림책을 활용한 연극놀이가 유아의 갈등인식 및 갈등해결에 미치는 효과. 충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윤옥 (2011). 협동학습에 기초한 그림책 활용 리더십 교육활동이 중일반 유아의 대인간지능과 서번트

- 리더십에 미치는 영향.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15(6), 189-212.
- 이정애 (2010). 협동적 편 게임이 유아의 자기조절력과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진희 (2014). 통합적 인성교육활동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및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춘희 (2007). 철학적 탐구공동체 활동을 통한 유아의 배려적 사고 증진에 관한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춘희 (2009). **유아의 배려적 사고 교육**. 서울: 창지사.
- 이현경 (2000). 미술협동 작업이 유아의 역할수용능력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옥분 (2008). **사회정서발달**. 서울: 학지사.
- 정혜영 (2010). 배려적 화법에 대화 학습 방법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기영, 신선희 (2003). 협동적 집단게임을 통한 유아의 사회화 과정에 대한 문화기술적 연구. **유아교육연구**, 23(2), 197-221.
- 키즈맘 (2015). '3~5세 육아 골든타임 놓치지 말자', 2015. 01. 19. <http://kizmom.hankyung.com/service/apps/print.view?nkey=201501191010261>에서 2015년 12월 12일 인출.
- 한국어린이육영회 (1991). **협동학습에 기초한 유아교육 프로그램방향 모색**. 서울: 한국어린이육영회.
- 한상미 (2002). 협동미술작업에서 공유되는 유아들의 상상력과 즐거움에 관한 이야기.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은미 (2008). 동화를 활용한 협동적 집단게임 활동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andura, A. (1969). Social learning theory of identificatory processes. In D. A. Goslin (Ed.), *Handbook of socialization theory and research*. Chicago: Rand McNally & Company.
- Bandura, A. (1986). *Social foundation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Bandura, A. & Schunk, D. H. (1981). Cultivating competence, self-efficacy, and intrinsic interest through proximal self-motiv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1(3), 586-598.
- Fisher, R. (1999). *First stories for thinking*. Oxford: Nash Pollock Publishing.
- Hoffman, M. L. (1987). The contribution of empathy to justice and moral judgment. In N. Eisenberg & J. Strayer (Ed.), *Empathy and its development*.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ipman, M. (2003). *Thinking in educati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yman, L. & Foyle, H. C. (1993). *cooperative grouping for interactive learning*. Washington DC: National Education Association.
- Parten, M. (1933). Social play among preschool children.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28(2), 136-147.
- Selman, R. (1980). *The growth of interpersonal understanding*. NY: Academic Press.
- Stein, N. L. & Trabasso, T. (1989). Children's understanding of changing emotional states. In C. Saarni & P. L. Harris (Ed.). *Children's understanding of emo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Vincent, R. C. (2002). *From chaos to community: Building a caring classroom community*.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Columbia, USA.

## ABSTRACT

This paper organized a cooperative activity using character-related picture books for guiding children to cooperate as a part of an effort to present solutions against the increasing tendency of individualism and the de-communication phenomenon among serious social issues affecting children in modern society. This paper aims to help the children to build the proper caring thinking for others and understanding the self by applying those cooperative activities. The subjects were 50 children of 4 years old in K and S day care centers in city C. The data were analyzed by caring thinking tool using t-test. It also recognized change to children's caring thinking of play situation by way of video and observation journal.

The results of the research found that the experimental group's caring thinking score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the control group. In accordance with the general analysis of the program results, it was verified that the cooperative activity's use of character-related picture books included caring thinking, understanding the self, and respecting others' emotions in them.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basic data to develop an educational activity program for character development and help with the application of character-related picture books.

■ **Key words** character-related picture books, cooperative activity, caring thinking

논문투고	15.10.15
수정원고접수	15.12.15
최종게재결정	16.01.31